

현장시선



김희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2004년 로저 맥너미(Roger McNamee)가 '새로운 표준: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라는 저서에서 대면 중심 상거래 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시대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경제체제 등을 설명하며 처음으로 사용한 경제 용어였으나, 현재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이전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임, 회의, 행사, 근무형태, 대면 장구 등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여러 기관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가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소위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종식되더라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 잠복기간이라는 위험요소가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편적 접종이 가능하려면 최소 몇 년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계절 유행병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동아시아에서 감염을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더 치명적으로 변했다"고 하거나, "일반적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숙주가 사망하면 바이러스도 죽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서 약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무시하는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와 국민들의 정책과 실천의지, 사회 상규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코로나19가 더 치명적으로 변이해 미국·유럽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최근 코로나19가 약해져 확진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는 미국·유럽의 일상화된 불뽕뽕 인사, 파티 등 집단문화, 마스크 미착용 분위기, 초기 대응 불찰 등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한국사회는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 성숙된 국민의식과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80%, 정부 20%를 부담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득 보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복지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한국사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41.9%였으나, 2020년 5월에는 70.3%로 대폭(28.4%) 상승했고, 건

강보험 신뢰도는 87.7%로 큰 성과를 이뤘다.

사회용어로 '뉴노멀' 시대에는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 소매로 입 가리기 등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향상이 필요하다. 경제용어로 '뉴노멀' 시대의 특징은 저성장, 저소득, 저금리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기재부, KDI, 무역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수출 전망 및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빈부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 지역의 약자를 도와주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수눔' 문화가 있다. 힘든 시기에 제주의 '수눔' 전통문화가 더욱 활성화 돼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주민 삶의 만족도 전국서 가장 낮은 제주

흔히 '빛 좋은 개살구'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게 좋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바로 제주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뭐 하나 좋은 평가를 받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지역민의 삶의 질 현황을 조사한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제주 주민들은 내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48.2%에 그쳤습니다. 42.9%는 보통, 8.9%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에서도 부정 답변이 긍정 답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49.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고, 만족한다는 13.7%에 머물렀습니다. 지역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

창출과 관련한 만족도 역시 그렇다는 답변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49.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제주의 '그늘진 모습'을 마주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주도민 스스로가 삶의 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제주에서 살아가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제주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얼마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이주 의향 조사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반 가량이 제주 이주를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제주가 어떻게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찾고 싶은 제주' 이전에 '살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도민들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 폭염대책 실효성에 만전을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대책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 시작으로 여름 더위가 다가온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방지 대책도 고려해야 해 올해 폭염대책이 유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올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수립, 도민과 관광객들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세부대책으로 그늘막과 버스승차대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확대 설치하고 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도 도심지 5개소에 새롭게 설치하는 등 곳곳에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늘릴 예정입니다. 혼자사는 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8400여명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도 운영됩니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의 지속 차원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실내 지정 무더위쉼터를 임시휴관하고, 필 요시 개방된 실외장소인 정자나 나무그늘, 공원 등으로 대체 운영

할 계획입니다. 바다 고수온, 농어업 및 축산업, 건설사업장 등의 폭염피해 최소화에도 나섭니다.

핵심은 폭염대책이 코로나19 확산방지 우선이라는 시대상황을 살리면서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무더위 피해도 줄이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입니다. 타 지방에 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들 무더위쉼터와 침방울(비말)이 물의 미세입자에 섞여 전파위험이 높은 쿨링포그 등의 운영을 모두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쿨링포그 운영 방침은 재고되어야 하지만 노인시설 휴관조치는 선택적 허용 방안을 검토할 만 합니다. 읍면지역 마을 노인시설의 경우 외부 교류가 거의 없는 동네 이용자로 한정된데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무더위쉼터 통제로 겪을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 폭염대책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현장의 폭염취약계층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탄력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열린마당

소방정책 홍보... 안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김승웅 도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장

소방은 화재 등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조직이다. 그렇기에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조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현대 소방의 핵심적 역할인 재난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은 무엇일까?

일상적 사고는 물론 국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안전한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 즉 '소방홍보'에 그 답이 있다. 소방홍보는 역할 면에서 일반홍보와는 다른 상이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홍보는 조직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예방홍보가 핵심이다. 그리고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및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홍보와는 달리 지속적인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듯 소방홍보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홍보의 추진을 강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조직 내 전담 홍보부서를 신설하고 홍보전문가를 별도 채용하여 더욱 전문적인 홍보 전략과 실행을 꾀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접근성과 가독성이 용이한 뉴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등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고 나아가 내부 구성원의 홍보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소방은 소방정책홍보가 도민 안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해 홍보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도민 모두가 소방홍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구성 '키' 쥔 더불어민주당 의총 주목

제주특별법 안전 상징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총 결과에 이목이 집중.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회칙개정과 최근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제주특별법'의 교묘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회 의견 요청건과 관련된 안전이 상징될 예정.

이 과정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정 논의와 교육원제도에 대한 당론이 결정될지 관심.

사계절 안전한 숲길로

○...제주시는 숲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올해 사려니숲길과 삼다수숲길 6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 정비는 숲길 일부 구간의 토사

가 유실되고,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등 훼손이 진행돼 친환경적인 보행매트를 설치할 계획.

시 관계자는 "시 관내 주요 숲길(등산로) 22개 노선의 64km에 대한 정기점검과 관리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직거래장터 마늘 저렴 판매

○...제주지역 농협이 올해산 햇마늘을 kg당 2300원에 수매하고 직거래 장터에서는 kg당 3000원에 판매하기로 해 눈길.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이달 10~11일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햇마늘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햇마늘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20kg 5만5000원·10kg 3만원)할 예정.

한 농민은 "농민에게 싼 값에 사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마늘 소비촉진이 이뤄지면 농협의 마늘재고량이 줄어 내년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부고

차봉훈 어머니 밀양박씨 복선(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3일 19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6월 5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6월 6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능협 장례식장 201분향실
▶장 지: 금약선영

아들 차삼정(敍) 동훈, 딸 차영희 사위 허상중, 영숙 고봉언, 영금 박성수, 유숙, 손 차원진

※ 연락처: 차봉훈 010-4907-4711, 차영희 010-3039-3498, 차숙희 010-3069-3029, 차영금 010-3694-6810, 차유숙 010-2717-8356, 고봉언 010-3698-5950

부고

이태경 아버지 전주이공 영주(향년 종합건설 대표·향년 64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3일 20시 5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6월 5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6월 6일(토요일) 오전 7시 2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해안동 가족선영

부인 허창영, 아들 이태경 며느리 이지연, 태림 윤예은, 태민

※ 연락처: 이태경 010-6764-9333, 이태림 010-2964-3020, 이태민 010-3320-9332

부고

김태원(네이버 웨ksom바일) 아버지 경주김공 민탁(베드로·前 남원1리장·향년 64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3일 18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6월 5일(금요일)
▶일포장소: 남원의례회관(남원읍 서의로26)
▶발인일시: 2020년 6월 6일(토요일) 오전 8시
▶장례미사: 2020년 6월 6일(토요일) 오전 8시 남원성당
▶발인장소: 남원성당(남원읍 남한로53)
▶장 지: 제주시 양지공원

부인 양정숙(여배나)

아들 김태원

지원 (세재요한)
※ 연락처: 양정숙 010-2697-8143, 김태원 010-3013-3840

부고

김창조(제주도청, 前 세계유산본부장) 아버지 안동김공 인황(향년 94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4일 12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6월 5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6월 6일(토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오라동 선산하

부인 양순정, 아들 김창조 며느리 강영심, 창준 정명희, 딸 김옥희 사위 강희삼, 성희 고성범, 봉희 고성일, 은희 고성승, 손 김래형 태윤

※ 연락처: 김창조 010-3698-7422, 김창준 010-3006-5951, 김옥희 010-3727-3701, 강영심 010-5640-5562, 정명희 010-5117-5951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